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7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2일(음력 6월 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사회적 약자를 품다

사노위, 6월 22일 봉은사서
사회적 약자 초청 법회 봉행
성소수자 · 참사유족 등 동참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법문 설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
평등사회 위해 등불을 들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열악한 조건에 내몰린 새로운 시대 필수 노동자, 장애 짊어진 가족, 성소수자. 이들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지금 여기 함께 숨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없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연대 불빛을 밝히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6월 2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세월호·제주항공 참사 유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유가족, 쪽방촌 활동가, 이주 노동자, 고공 농성 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사회적 약자나 이들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40명이 초청됐다.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봉은사 신도 등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소리없는 응원을 보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고통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돌봄과 성찰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법당에 모인 진정한 이유"라며 법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오래전 이 땅에 와서 설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을 언급하며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부처와 같은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그 어떤 생명도 결코 하찮지 않다"며 "이는 교리나 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는 모든 존재의 뿌리와 미래를 지켜주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고통받는 이를 향한 자비심, 그들을 대신해 외치는 용기가 바로 보살행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한 팔만사천 법문은 결국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마음공부의 실천"이라면서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등불을 들어야 한다"고 설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없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연대 불빛을 밝히기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6월 22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이날 법문에서 진우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불교계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언급한 스님은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면서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고,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면서 법 제정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우 스님은 또 바깥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이라는 작은 우주를 다스리는 수행을 할 것을 조언했다. 밖으로는 정의롭고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고 안으로는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한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음 하나를 바꾸면 세상 풍경이 달라지고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곁에, 그 누구의 삶에도 부처님은 항상 함께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돼 고요한 위로가 돼주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께 이주노동자 치료 및 긴급구제 기금 500만원을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회 동참자들은 불교 성소수자 모임 '불반'의 김재현 총무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우리 모두는 이름만 다를 뿐 서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한 몸 한 생명 같은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빈곤과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상생과 공존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법회 후 진우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올해 말 결정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진우 스님에 중간 보고
7~11월 모의실험 진행
"올해 안 실험 마무리"

조계종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중점 원력 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의 입불 여부가 올해 연말 최종 결정된다. 국가유산청은 7~11월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12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심의에 올릴 계획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6월 2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모의실험 추진 현황'을 중간 보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가능성 검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2월 28일부터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애불 취약점 분석에 따른 가력시 위험도를 예측해 불상 석제 모형을 제작, 입불 가능성 검증과 합리적 장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검증과 함께 좌대 형태, 지반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통해 마애불 석재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가력시 위험도와 훼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이날 이종훈 문화유산보존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마애불은 과거 지진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13개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입불과정에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양중 및 이동 시험이 필수다. 국가유산청은 양중 실험은 8월 셋째 주까지, 이동 실험은 9월 넷째 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불 후에도 지속적 자세안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모의실험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주변 지형을 분석하고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양중, 이동 응력 분산을 위해 석재 모형을 감싸는 프레임을 제작 중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11월 말까지 입불 이후 안정성 실험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입불을 포함한 장기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 심의에 올릴 예정이다.이후 심의가 완료되면 2026년 1월부터 모의실험 결과에 따른 현장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입불 사업이 추진된다.

최응천 청장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모의실험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사고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미얀마에 깨끗한 물을"



현대불교신문과 로터스월드가 열악한 식수환경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전하는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이 '불교국가' 미얀마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승보공양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스님 복지비 지원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진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진료비 지원 -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 - 제2병동 건립 * 재가불자 이용 가능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덕 림 합장